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침, 일어났을 때 당신의 몸에**



건강한 면이 아픈 면보다 더 많다면
당신은 이번 주를 넘겨 살지 못할 이세상의 백만명 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만일 당신은 한번도 전쟁의 위험이나 수용소의 외로움이나
고문의 고통이나 굶주림의 쓰라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이 세상의 5억명의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입니다

체포, 협박, 학대, 고문,
또는 죽음의 두려움 없이 교회를 나갈 수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의 30억의 사람들보다
더 축복 받은 사람입니다

만일 당신의 냉장고 안에 음식이 있다거나
당신의 몸에 옷이 걸쳐져 있다거나
머리 위에 지붕이 있고
잠 잘 장소가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의 인구의 75%보다 더 부유한 사람입니다.

통장에나 지갑에나 돈이 있다거나
집 어디엔가 작은 그릇 안에 남은 동전들이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의 8% 상위권 안에 드는 부유층입니다

만일 당신이 고개를 들고, 얼굴에 미소를 띠고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다면
당신은 축복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면
대부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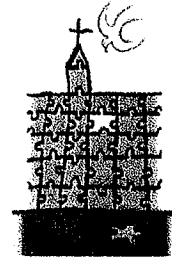
만일 당신이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주거나, 안아주거나
아니면 그저 그 사람의 어깨에 손을 얹어 준다면
당신은 축복 받았습나다
왜냐면 당신에게서 치유가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랬지▶ **봉숭아 물들이기**
토방 뒷마루 끝에 핀 봉숭아. 백반과 소금을 섞어
짙어 손톱에 얹고 실로 묶어 하룻밤을 자고 나면
빨갭게 물든 열 손가락. 첫서리 올 때까지 봉숭아
빠알간 물이 손톱 끝에 남아 있으면 첫사랑이 이
루어진다는 말에 설레였던 한가한 마음이었습니다
이젠 깊게 패인 손잔등 주름과 하얀 귀밑머리지만
마음엔 아직도 빨간 봉숭아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교회 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2003년 교회생활 "건강한가정·건강한교회" 갈보리 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 섬김과 봉사 *익명성 - 명예
제 5권 33 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3년 8월 17일
☎ 520-9464, 71 Khyber Pass Rd. (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calvary.ca.to		

어리석은 용기



최근의 모습은 잘 모르겠으나 전에는 일본이 독일을 좋아했
다고 합니다. 독일의 여러 가지 장점을 동경하는 경향도 있
었습니다.

오래전에 일본의 고위 관리가 수행원을 대동하고 독일을
방문했습니다. 그 관리는 독일의 발전상을 보며 감탄했습니
다. 아무래도 자기네 보다 우월한 나라요 민족인 것 같았습
니다.

그런데 한 파티석상에서 독일의 관리가 일본 관리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독일 국민은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국민입니다.

우리 독일 국민은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일본 관리가 쩍새게 생각했습니다.

"그 동안 독일을 시찰하면서 우리 일본이 계속 끌리는 느낌을 받았는데 지
금이 우리도 우수한 민족이라는 것을 보여줄 기회다. 마침 독일 국민은 두
려워하는 게 있으니 우리는 더 용감하다고 자랑하자."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우리 일본 국민은 더 용감합니다. 우리 일본 국민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국민입니다. 우리 일본 국민은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귀국민
이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독일 관리가 꺾꺾대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했습니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용감한게 아니라 어리석은 것입니다."

엄마가 딸에게
입지 않는 옷은
나누어 주어라
아끼다가 작아져 못 입게 되면
더 아깝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독서를 많이 해라
너와 별 다르게 없어 보여도
훗날 성공할 친구는 지금
책장을 한 장씩 넘기고 있다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광송 Gloria	"Calvary"	다 같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도니라	인도자
*찬송 Hymn	9장	다 같이
*성서교독 Response Reading	13 (시편 34편)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교회소식 Welcome & Announcements		
어린이 시간 Sunday School		주일학교
찬송 Hymn	466장	다 같이
기도 Prayer		김순자 권사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로마서 5:12-21	인도자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심자가성가대
설교 Sermon	믿음시리즈(6) "대표 한 사람을 믿는 믿음"	김성국 목사
찬송 Hymn	211장	다 같이
헌금기도 Offering Pray		인도자
응답송 Response Song	'이 믿음 더욱 굳세라' (1절:권오걸.허미숙 집사 가정 2절:다같이)	다 같이
축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예배를 마치고서 Hall에서 Tea Time을 갖습니다)

◆8월의 예배위원◆

일자	주일기도	헌금위원	가족찬송	Tea Time
3	최재학	유성희	권사회	유병민, 윤형권
10	김교섭	이근평	장로.안수집사	이근평, 이재윤
17	김순자	이금선	권오걸.허미숙	정관영, 정종일
24	김종건	이기중	권용일.이지영	조용건, 최득수
31	김영길	이재윤	학생부교사	최원영, 최재학

'2003년 교회표어
"건강한 가정, 건강한교회"(마 18:4)
부모의 기도받는 자녀
남의 형편 헤아리는 신앙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어려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
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 낮 12시 | 수요일예배: 저녁 7:30 | 아동.학생부:주일 낮 12시 | 청년부:토 저녁 7시

- 오늘은 식사친교주일입니다.
*어제는 찬바람 다시 불어 봄처럼 차마 끄는 소리를 잠시 멈추게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따끈한 장국밥이 그리운 잊저녁이었습니다.
*오늘 설거지에 자원하시는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 오늘 Fijian Service(오후 4시)에 Fiji 수상의 참석으로 예배 좌석이 좀 다르게 배치 되었습니다. 경호원이나 경찰견은 안보이고 목사님과 청년 몇이서 준비하는 모습에 작게 사는 것이 편안히 사는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 수요일예배, 잠시 지내던 걸음 멈추고 찬양과 기도, 말씀과 교제로 다시 돌아보는 수요일의 믿음의 밤, 출애굽기 강해가 계속됩니다.
<일시> 매 수요일 저녁 7:30.
- 탁구실 관리 자원봉사:탁구실을 관리해 주실 성도의 자원하심을 기다립니다.
*매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탁구실을 Open합니다
- 학생부 부모님께
*오늘은 학생,청년부의 Sports Day입니다(매월 셋째주일). 식사 후 YMCA 체육관(City)에서 갖습니다. 부모님께서서는 자녀들을 체육관에서 Pick up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오후 5시)

◀작한 시인들▶

"눈에 눈물이 없으면
그 영혼에는 무지개가 없다"

-류시화- <하늘 호수로 떠난 여행>중에서

시인이 인도 여행 중 만난 어느 평범한 사람에게서 들었다는 말입니다. 참 부러운 사람입니다. 젊은 날, 인생을 체험기 위해 마음껏 여행을 떠날 줄 알았던 사람.

'내가 다시 젊어진다면....' 이런 말로 지나온 삶을 후회만 하는 나는,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고 해도 내겐 그 삶이 그 삶을 잘 압니다. 이제 후회로 보내는 낭비보다는 나보다 앞서 지혜롭게 살았던 자들의 경험을 들으며 뒤늦게나마 깨닫는 것이 더 현명하리란 생각이 들었습니다